

조선산업



트럼프 대통령의 IMO 거부는 매우 합리적이다

산업분석

2025. 08. 19

treaboat@treaboat.com

산업 전망

기축통화의 정당성은 강력한 해군력에서 비롯된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었다. 시간이 흐른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미국 정부는 IMO 탄소세를 질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탈탄소 거부 목소리는 유럽의 기축통화 도전의 수단으로 탈탄소, 탄소 중립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여년전 영국의 제국주의는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곳을 지나는 화물선박의 통행을 통제하고 무역 거래 수단으로 파운드화를 사용할 것을 강제했다. 2차대전 이후 국력이 쇠락한 영국은 더 이상 식민지를 유지할 수 없었고 전세계 식민지에 건설했던 주요 해상 루트의 해군기지들은 대부분 미국에 매각되었다. 지금도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는 지역에 영국령 해군 기지가 존재하는 것들이 과거 영국 제국주의의 잔재이며 지금 미국이 이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달러화는 세계 결제통화의 위상을 갖고 있다.

유럽의 탈탄소와 기축 통화 도전

유럽연합으로의 통합 이후 출범한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항해 새로운 기축통화로 위상을 높이려 했다. 이에 대한 시도로 전세계 달러 결제의 절반가량인 석유 사용량을 줄이는 탄소 중립을 강조하고 탄소 배출권 결제통화 기준을 유로화로 제시하면서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항하는 기축통화로 위상을 높이려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축통화 도전의 수단으로 내세우는 탄소중립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 된다.

국가 정치적 목적에 불과한 탄소 중립

유럽의 탄소 중립 목적이 사실은 달러화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견제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Save the world로 포장되는 것이다. 탄소 중립은 진정한 환경 운동이 아닌 유럽의 정치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국제평화 조약에 불과한 탄소중립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